

#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 지원 확대

### 전남도, 농수산물·전통 공예품·화장품 등 70개사 선정 참가 기업 상시 모집...상품디자인·판촉 프로모션 등 혜택

전남도가 농수산식품의 온라인 수출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전남브랜드관 입점 지원을 공산품까지 확대 추진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하고, 농수산식품을 입점시켜 판매·홍보, 배송·물류관리 등 아마존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과 유럽 아마존 브랜드관 운영 공모를 통해 미국은 로스앤젤레스(LA)의 크리에이티브, 유럽은 독일의 이지룩아시아를 운영사로 재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운

영 성과를 바탕으로 나라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을 분리해 아마존 전남관을 운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운영사를 재선정해 추진함에 따라 기존에는 상운 농수산식품만 판매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전통 공예품, 화장품 등 소비재도 판매한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등 7개국 아마존 전남관에 수출업체 70개사를 선정해 판매 대행 및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엔 아마존 입점 및 판매, 상품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 지원, 이벤트 및 판촉 프로모션 진행 등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은 상시 모집하므로 참여를 바라는 기업체는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아마존 전남관이 케이(K)-푸드 세계 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확장되고 있다"며 "온라인 수출 초보기업엔 상품 이미지 제작, 아마존 물류시스템(FBA) 입고, 광고 등 신규 입점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존 입점 기업엔 매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아마존 전남관은 현재 49개 업체, 124개 제품이 입점해 판매 중이며, 지난해 매출 실적은 164만 달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청사 신관 건립 착공식** 17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청사 신관 건립 착공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북구청장, 김형수 북구의회의장, 김병인 전남대 부총장 등 내외빈들이 착공의 시작을 일리며 시삽하고 있다. /김진표 기자 jeans@kwangju.co.kr

## “시민 제안 홍보콘텐츠로”...광주시, ‘모두의 광주’에 시민채널 개설

### 19일까지 오픈 기념 퀴즈이벤트

광주시가 시민이 현직인만 아는 맛집, 숨겨진 명소, 유용한 시책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해 제안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유용한 소식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광주시 온라인 홍보플랫폼 ‘모두의 광주’에 커뮤니티 서비스인 ‘시민채널’을 새롭게 선보였다.

‘시민채널’은 광주시민이 광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콘텐츠를 제안하는 ‘시민톡’과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제작한 시민콘텐츠를 담은 ‘시민광장’으로 구성됐다.

제공한 아이디어가 채택돼 콘텐츠로 제작되면 광주상생카드(5만원권)를 지급하며, ‘모두의광주’ 크리에이터인 ‘광주피플’로 활동할 수 있다.

광주시는 커뮤니티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퀴즈이벤트 ‘자기야, 나 뭐 달라진 거 없어?’를 이날부터 19일까지 사흘동안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모두의광주’(https://news.gwangju.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새롭게 선보인 ‘시민채널’에서 하고 싶은 말을 남긴 후 이벤

트 구글폼에 접속, 정답과 가입 아이디(ID)를 남기면 된다.

추첨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권(티빙·유튜브 프리미엄)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1일 ‘모두의광주’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다.

신동하 광주시 대변인은 “‘모두의광주’ 이용자가 늘고 6만명이 늘어나는 등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더 소통하면서, 시민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을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AI 가전기업 육성 지원 나선다

### 2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광주시가 인공지능(AI) 가전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가전산업 인공지능(AI)기술 적용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2022년 산업자율부의 ‘AI가전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플랫폼 구축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AI반도체를 활용한 지역 가전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가전기업의 AI 적용 지원, 기업 입주공간 제공, 시험무대(테스트베드) 기반의 AI가전제품 성능 평가와 인증 등을 지원해 왔다.

광주시는 특히 중소 가전기업의 제품 고도화를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에 ‘AI 가전 상용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에는 AI 가전제품 성능평가와 인증을 위한 ‘실증챔버’를 조성하는 등 AI 가전기업의 실증환경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AI모델 개발 지원(5건·최대 5000만원) ▲AI반도체 및 보드 개발 지원(5건·최대 5000만원) ▲AI기술 적용 상담 지원(5건·최대 1800만원) ▲특허 등록 및 출원 지원(5건·최대 900만원) ▲기업 R&D 발굴 지원(2건·최대 1500만원) ▲마케팅 지원(4건·최대 1000만원) ▲전시회 참관 지원(4건·최대 1000만원) ▲AI+ 인증 지원(5건·최대 1000만원) ▲AI가전 보안상담(5건) ▲기술상담 지원(사업비 소진 때까지) 등 8개 분야이며, 1개 기업당 최대 2개 분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2일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 대표 가전기업과 인공지능(AI)기업 5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광주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인공지능산업연계회 누리집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확인해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지역 가전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유망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여름철 농업재해 상황실 운영

### 10월까지 응급복구 등 지원

전남도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또 시·군 22개소, 농협 23개소, 농어촌공사 19개소에 상황실을 설치,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시 24시간 근무, 기상상황 전파와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7일 “여름철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2024년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을 추진해 농업분야 재해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은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이상 고온으로 폭염 증가와 함께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시·군·특별별·품목별 생산자 단체와 연계·소통하는 ‘농업재해 대응 현장 모니터링반’을 149명으로 구성해 단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신속한 현장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를 지원하고, 농작물 생육 및 수확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5월 한달 간 재해 취약시설인 과수·원에 시설 1945개소, 축산시설 453개소 수리시설 883개소 등 3281개소에 대한 배수로 정비, 관리실 등 사전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여름철 농업분야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농업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경쟁력 강화 나서

### 전남도, 차량임차·시설장비 지원

전남도가 사회적 경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차량 임차와 시설 장비 구매 지원 등 판로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수도권 등 전남 외 지역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선 개별 차량으로 각자 물품을 옮겨야 해서 영세한 사회적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

전남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제품 운송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경에서 5t 규모 차량의 임차비를 확보, 사회적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판촉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추진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 수요가 많았던 시설장비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자부담 포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하반기 공모 접수에 착수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마켓 입점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 투입한다. 오아시스마켓은 수도권 중심 새벽배송 특화, 유기농 상품 전문 플랫폼이다. 올해 전남지역 10개 기업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등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집중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촉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갇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